

1 문학과 삶에서 만나는 의미

최종 단원 평가 1회

04~06쪽

- 01 ⑤ 02 ③ 03 ④ 04 ④ 05 ②
06 말하는 이의 외로움을 달래 주고 위안이 되는 존재 07 ④
08 ② 09 ④ 10 자신감과 자부심이 생기고 스스로
를 사랑하게 되면서 마음의 근육이 생겼기 때문이다.

01 시에서 동일한 구절의 반복은 운율을 형성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반드시 모든 연에서 동일한 구절이 반복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한편 운율은 같은 호흡의 반복, 일정한 글자 수의 반복, 같거나 비슷한 소리·단어·구절, 문장 구조의 반복, 의성어나 의태어의 사용을 통해서도 형성될 수 있다.

02 의성어는 사람이나 사물의 소리를 흉내 낸 말을, 의태어는 사람이나 사물의 모양이나 움직임을 흉내 낸 말을 의미한다. (가)에서는 ‘핑 핑’, ‘나즉 나즉’, ‘좌아악’, ‘악자지껄’과 같은 의성어나 의태어가 사용되었지만 (나)에서는 의성어나 의태어가 사용되지 않았다.

오답 풀이 ① (가)는 ‘자장가처럼’, ‘아이들처럼’에서 대상을 직접 빗대어 표현하는 직유가 사용되었다.

② (가)는 ‘파란 싹들이 / 악자지껄 / 일어나 있다’에서 새싹이 돌아난 모습을 사람이 행동하는 것처럼 표현한 의인의 방법을 사용하여 파란 싹들을 생생하게 나타내고 있다.

④ 추상적인 대상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은 상징이다. (나)는 ‘별’, ‘꽃’, ‘길’과 같은 시어에 말하는 이의 소망과 관련한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하여 주제를 함축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⑤ (가)는 1연의 ‘봄눈이 내리더니’와 5연의 ‘해가 떠오르더니’, 2연의 ‘점심 무렵에는 / 산과 / 들이’와 6연의 ‘점심 무렵에는 / 산과 / 들에’에서 같거나 비슷한 구절을 반복하고 있다. (나)는 1연과 2연에서 ‘될 수 있을까’, 3연과 4연에서 ‘갖고 싶다’라는 동일한 구절이 반복되고 있다.

03 [A]는 비유를 사용하여 산과 들에 눈이 쌓인 풍경을 표현하고 있으나, <보기>는 눈이 쌓인 모습을 사실 그대로 표현하고 있다. [A]는 <보기>보다 대상을 참신하게 표현하여 표현의 신선함과 감상의 재미를 더하고, 대상을 더 구체화하고 생생하게 나타내는 효과를 줄 수 있다. ‘눈’의 사전적 의미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은 <보기>이다.

04 [B]는 의인을 활용하여 파란 싹들을 사람이 행동하는 것처럼 표현한 것이다. ④도 의인을 활용하여 바람이 부는 것을 사람처럼 속삭이는 행동에 빗대어 표현한 것이다.

오답 풀이 ① 살아 있지 않은 대상을 살아 있는 것처럼 빗대어 표현한 방법인 활유법이 사용되었다.

② 직유법을 사용하여 ‘그의 마음’을 ‘바다’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③ 직유법을 사용하여 ‘눈’을 ‘천사의 날개’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⑤ 구름이 하늘을 채우고 어두워지는 자연 현상을 묘사한 것이다.

05 (나)의 1연과 2연에서 말하는 이는 ‘될 수 있을까’라는 표현을 통해 자신의 소망을 간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말하는 이의 소망은 3연과 4연에서 ‘갖고 싶다’라는 직접적 형태로 전환되며 시상이 점층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1연과 2연에서 ‘될 수 있을까’, 3연과 4연에서 ‘갖고 싶다’라는 구절을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③ ‘세상일이 괴로워 쓸쓸히 밖으로 나서는 날’, ‘외로울 때’와 같은 표현을 통해 현재 말하는 이가 괴롭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음 어두운 밤’은 이러한 화자의 현실을 암시한다.

④ (나)에서 ‘별’은 외로울 때 부르며 다가오는 존재로, 말하는 이의 외로움을 달래 주는 존재를 의미한다. ‘꽃’은 세상일이 괴로울 때 가슴에 안겨 웃어 주는 존재로, 누군가에게 위안을 주는 존재이다. (나)의 말하는 이는 별과 꽃처럼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은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⑤ (나)의 말하는 이는 ‘별’, ‘꽃’과 같이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은 소망과 ‘가슴에 사랑하는 별’과 같이 의미 있는 존재를 갖고 싶은 소망을 함께 드러냄으로써 서로가 서로에게 위안이 되는 희망적인 삶을 소망하고 있다.

06 (나)에서 ㉠은 말하는 이가 소망하는 대상으로, 자신이 외로울 때 다가와 함께 있어 주는 존재이다. 즉 ‘사랑하는 별 하나’는 말하는 이의 외로움을 달래 주고 힘든 상황에 처한 말하는 이에게 위안을 주는 존재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이 말하는 이의 외로움을 달래 주고 위안이 되는 존재임을 서술하였다.	☐
내용을 완결된 형태의 한 문장으로 서술하였다.	☐

07 화자는 자신의 대조적인 모습이 담긴 두 사진을 비교하여 제시하고 있을 뿐, 동영상 자료는 제시하지 않았다.

오답 풀이 ① 이 연설은 화자가 초등학교 시절,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했던 경험과 권투를 배우며 내면이 성장한 경험 등 화자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내용을 구성하고 있다.

② 화자는 자신의 외모가 예쁘게 나온 사진과 격투기 시합이 끝난 직후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비교하여 제시하면서 연설을 시작하고 있다.

③ 화자는 “왜 그럴까요?”와 같이 질문을 던지며 청중의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⑤ 화자는 ‘밝은 목소리로 바꾸어’, ‘(단호한 표정으로)’와 같이 표정이나 말투에 변화를 주어 연설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08 초등학교 시절, 화자를 따돌렸던 친구들이 이후 화자에게 사과를 했는지의 여부는 이 연설에서 확인할 수 없다.

09 ㉡은 화자가 권투를 배우면서 자기 비하에서 벗어나 매사에 열정적이고 열심이었던 본래의 성격을 되찾게 되었다는 의미이다.

10 화자는 권투를 배우며 자신감과 자부심을 갖고 스스로를 사랑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생긴 마음의 근육 덕분에 화자는 따돌림을 당하던 과거와 달리, 자신을 비난하는 내용의 댓글을 보아도 신경 쓰지 않게 되었다.

평가 기준	확인 ☒
화자의 내면적 성장과 관련된 핵심어를 한 가지 이상 포함하여 서술하였다.	☐
내용을 완결된 형태의 한 문장으로 서술하였다.	☐

최종 단원 평가 2회

07~09쪽

- 01 ① 02 ③ 03 ④ 04 청소년을 아홉에 빗대어 표현함으로써 숫자 아홉처럼 무한한 꿈과 가능성을 지닌 청소년의 가치를 전달하고자 했다. 05 ② 06 ③
- 07 ⑤ 08 약속 시간이 지났는데 왜 이렇게 늦게 왔냐는 의미일 것이다. 09 ① 10 자전거 이용자와 대여소 관계자의 인터뷰, 통계 자료, 전문가의 인터뷰 11 ③

01 (가)는 1연과 2연에서 '될 수 있을까', 3연과 4연에서 '갖고 싶다'라는 동일한 구절을 각각 반복하고 있을 뿐, 2연과 4연에서 동일한 구절을 반복하고 있지 않다.

오답 풀이 ② (가)에서 말하는 이의 소망은 1연과 2연에서 '될 수 있을까'의 간접적 형태로 제시되고, 3연과 4연에서 '갖고 싶다'의 직접적 형태로 제시된다. 소망을 제시하는 말하는 이의 태도가 전환되며 시상을 점층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③ (나)에서 "모든 기록은 깨어지기 위해서 있다."라는 관용 표현을 통해 무한한 가능성과 불완전성을 지닌 인간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④ (나)에서 마지막 문장의 순서를 바꾸어 '이제부터라도 열이란 수보다 아홉이란 수를 더 사랑해 보는 것은.'을 '어떨까요.' 뒤에 놓음으로써 숫자 아홉과 같이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청소년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

⑤ (가)는 '별', '꽃', '길' 등의 상징적 시어를 사용함으로써, (나)는 '어른'을 '열'에, '청소년'을 '아홉'에 빗대어 표현함으로써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02 (가)의 말하는 이는 '별', '꽃'과 같이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다는 소망과 '가슴에 사랑하는 별'과 같이 의미 있는 존재를 갖고 싶은 소망을 함께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말하는 이는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위안이 되는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삶을 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03 '우러르다'는 '위를 향하여 고개를 정중히 쳐들다.'라는 의미이다. 말하는 이는 '우러러 쳐다본다'는 표현을 통해 자신이 소망하는 존재를 갖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을 뿐, 그 존재에 닿을 수 없는 괴로움을 드러낸다고 보기 어렵다.

04 (나)의 글쓴이는 아직은 부족하지만 가능성이 있다는 공통점을 바탕으로 청소년을 숫자 아홉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글쓴이는 아홉처럼 무한한 꿈과 가능성을 지닌 청소년의 가치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평가 기준	확인 ☒
(나)의 글쓴이가 표현하려는 대상과 빗대어 표현한 대상을 알맞게 서술하였다.	☐
주어진 문장 형식에 맞게 서술하였다.	☐

05 ㉠에는 '같은'이라는 표현을 통해 '청소년'을 '아홉'에 직접 빗대어 표현하는 직유가 사용되었다. 그리고 ㉡에는 이어 주는 말 없이 '하얀 눈'을 '하얀 이불'에 간접적으로 빗대어 표현하는 은유가 사용되었다.

06 담화에서 화자의 의도나 관점을 추론하며 들을 때에는 여러 가지 정보와 담화의 상황 맥락을 고려하며 들어야 한다. 이때 상황 맥락은 화자와 청자, 시간과 장소, 의도와 목적으로 구성된다. 화자의 말에 대한 반응을 생각하며 듣는 것은 추론하며 듣기의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다.

07 ㉢은 팔이 다친 것을 걱정하는 종하의 말에 대한 대답으로, 많이 다친 것은 아니라는 의미를 지닌다.

08 남학생은 영화관 앞에서 만나기로 한 친구가 약속한 시간보다 늦게 오자, 그 친구에게 "지금 몇 시니?"라고 말하였다. 이러한 상황 맥락을 고려했을 때, 남학생의 말은 약속 시간이 지났는데 왜 이렇게 늦게 왔냐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담화가 이루어지는 상황 맥락을 고려하여 남학생의 말의 의미를 서술하였다.	☐
내용의 완결된 형태의 한 문장으로 서술하였다.	☐

09 뉴스 보도와 같은 정보 전달 담화를 들을 때에는 객관적인 관점에서 여러 가지 정보를 바탕으로 화자가 전하고자 하는 바를 파악하며 들어야 한다.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의견을 위주로 정리하며 정보 전달 담화를 들으면 객관적이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치게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10 이 뉴스 보도에서 기자는 자전거 안전모의 착용률을 높이기 위해 안전모 미착용 시 처벌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도를 전달하고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의도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자전거 이용자와 대여소 관계자의 인터뷰, 다양하고 구체적인 통계 자료,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보도의 의도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기자가 사용한 방법을 두 가지 이상 서술하였다.	☐

11 “2018년 도로 교통법 개정으로 자전거를 타려면 반드시 안전 모를 써야 하지만 처벌 규정이 없다 보니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라는 기자의 말에서, 대부분의 자전거 이용자들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 이유가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 오답 풀이** ① 전기 자전거 공유 서비스의 확대로 인해 자전거 이용자들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② 자전거 대여소 관계자의 인터뷰를 통해 자전거 대여소에서 자전거와 안전모를 함께 빌릴 수 있으나, 이용자들이 안전모를 잘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④ “2018년 도로 교통법 개정으로 자전거를 타려면 반드시 안전모를 써야 하지만”이라는 기자의 말을 통해, 안전모 의무화 규정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⑤ 자전거 도로의 설치와 자전거 안전모 미착용 사이의 관련성은 확인할 수 없다.

2 정보를 판단하는 힘

최종 단위 평가 1회

14~16쪽

- 01 ③ 02 ③ 03 ① 04 스마트폰을 과도하게 사용하면 뇌가 고르게 발달하지 못한다. 05 ④
 06 옷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다량의 탄소 배출로 인해 환경이 오염되고, 수자원의 오염과 낭비 문제가 발생한다. 07 ①
 08 ③ 09 ⑤ 10 ④ 11 ⑤ 12 우리의 전통 음식인 너비아니는 여러 방면으로 가치가 있는 음식이다.

01 (가)와 (나)는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이 청소년기의 뇌 발달에 미치는 부작용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는 글이고, (다)는 지도의 정의와 구성 요소를 설명하는 글이다. 따라서 (가)~(다)는 특정한 대상이나 개념에 관한 정보를 알려 준다는 공통점이 있다.

오답 풀이 ①, ② 어떤 주제에 관하여 자기의 생각이나 주장을 체계적으로 밝혀 쓴 ‘주장하는 글’에 대한 설명으로, 주장하는 글은 독자의 행동 변화를 촉구한다.

④ 사실 또는 작가의 상상력에 바탕을 두고 허구적으로 이야기를 꾸며 내어 전달하는 소설에 대한 설명이다.

⑤ 일정한 형식을 따르지 않고 인생이나 자연 또는 일상생활에서의 느낌이나 체험을 생각나는 대로 쓰는 수필에 대한 설명이다.

02 (가)에서는 통화를 하거나 메시지를 주고받는 기본적인 기능부터 영상 촬영, 음악 감상, 영화나 드라마 시청, 게임, 타인과의 소통 창구, 쇼핑 및 결제의 수단, 오락 및 놀이의 도구, 학습의 도구로까지 사용되는 스마트폰의 다양한 기능을 소개하고 있다. (나)에서는 스마트폰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해 뇌가 고르게 발달하지 못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설명하고 있다.

03 (다)에서는 지도의 정의와 지도의 구성 요소인 축척, 방위, 기호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방위를 나타내는 기호가 없을 때 방향을 파악하는 방법도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지도의 종류에 대해서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오답 풀이 ② 지도의 구성 요소인 방위는 지도에서 방향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였다.

③ 지도란 지표면의 여러 가지 지리적 현상을 약속한 기호로써 평면에 나타낸 그림이라고 하였다.

④ 지도의 구성 요소인 축척은 실제 거리를 줄여서 지도에 나타낸 비율이라고 하였다.

⑤ 방위를 나타내는 기호가 없을 때에는 지도의 위쪽을 북쪽으로 본다고 하였다.

04 (나)의 중심 문장은 ‘먼저 스마트폰을 과도하게 사용하면 뇌가 고르게 발달하지 못하고 과도하게 한쪽으로 치우친 상태로 발달하게 된다.’이다. 문장에서 ‘과도하게 한쪽으로 치우친 상태로 발달하게 된다.’는 앞 부분의 ‘뇌가 고르게 발달하지 못하고’와 의미상

중복되므로 삭제할 수 있다. 따라서 '스마트폰을 과도하게 사용하면 뇌가 고르게 발달하지 못한다.'로 요약할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중심 내용을 바르게 요약하였다.	☐
요약한 내용을 완결된 하나의 문장으로 서술하였다.	☐

05 (가)는 패스트 패션이 환경 오염에 미치는 문제점과 해결 방안 에 대한 글쓴이의 주장을 담은 글의 일부이고, (나)는 갑자기 쏟아 지다가 뚝 그치는 비를 '소나기'라고 부르게 된 유래에 관한 이야기 글의 일부이다. 이때 (가)는 옷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 경 오염에 대해 제시하는 '본론'에 해당하고, (나)는 마른하늘에 갑 자기 장대 같은 빗줄기가 쏟아지고, 스님이 곧 비가 올 것임을 예 측했던 까닭(근거)을 이야기하는 '중간' 부분에 해당한다.

06 (가)에서는 옷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오염에 대 해 제시하고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가)의 내용을 바르게 요약하였다.	☐
요약한 내용을 한 문장으로 서술하였다.	☐

07 스님이 내기에 건 대상이 무엇인지 이 글에서는 알 수 없다.

오답 풀이 ② 농부는 스님과의 내기에서 져서 소를 잃게 되었다.

③ 농부는 농사에 필요한 때에 맞추어 비가 내리자 좋아서 싱글벙글하였 다.

④ 스님은 빨래를 자주 못 하니까 늘 옷이 땀에 젖어 있다고 하였다.

⑤ 스님은 땀(소금)에 젖어 있는 옷을 만져 보니 몹시 눅눅해서 공기 속에 물기가 많으니 곧 비가 올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08 (가)는 주장하는 글이기 때문에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중심으 로 요약하고, (나)는 이야기 글이므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요약하 는 것이 적절하다.

09 정보를 전달하는 글을 쓸 때 계획하기 단계에서는 글의 목적, 예상 독자, 글의 주제, 글의 종류에 대해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 야 한다. 다양한 매체에서 주제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내 용 생성하기 단계에서 하는 일이다.

10 개요는 내용 생성하기 단계에서 글을 쓰기 전에 글의 방향을 설정하고, 내용을 짜임새 있게 조직하기 위해 작성하는 것이다. 개 요를 작성하면 글의 방향을 일관성 있게 설정하고, 효과적인 표현 방법도 살펴볼 수 있다. 개요는 작성하고 난 후나, 글을 쓰는 도중 에도 수정 또는 보완할 수 있다.

11 개요 중 '너비아니의 변신'은 전통 음식인 너비아니를 활용한 다양한 요리가 개발되고 있다는 내용과 관련이 있다. 자료 ㉔은 궁 중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체험에 관한 내용이므로 너비아니의 변신 과 거리가 멀다.

12 서연이 찾은 자료 중 중요도가 높은 것은 너비아니의 재료 및 요리 순서, 너비아니의 주재료인 소고기의 영양 정보, 너비아니의 역사와 유래이다. 따라서 전통 음식인 너비아니가 가치 있는 음식 임을 알 수 있도록 정보를 전달하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자료의 내용을 바탕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글의 주제 를 바르게 서술하였다.	☐
주제를 완결된 형태의 한 문장으로 서술하였다.	☐

최종 단원 평가 2회

17~19쪽

- 01** ④ **02** ⑤ **03** 손가락을 몇 번 움직여 좋아하는 영상을 시청할 수 있고, 단순한 조작만으로 재미있는 게임을 언제 든지 할 수 있기 때문이다. **04** ⑤ **05** ⑤
- 06** ③ **07** ⑤ **08** 불필요하게 새 옷을 구매하지 않 고, 환경 보호라는 가치를 기준으로 삼아 옷을 구매한다.
- 09** ⑤ **10** ③ **11** 너비아니를 만들 때 필요한 재료의 양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고, 너비아니를 만드는 방법을 이해하기 쉽 게 설명할 수 있다. **12** 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이다.

01 필요한 정보가 있는지, 즉 정보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요약할 문단을 선택하는 것은 읽기 목적에 따라 글을 요약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다.

02 글쓴이는 (다)에서 스마트폰이 일상생활의 필수품으로 자리 잡 았지만 스마트폰에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필요 이상으로 사용할 경 우, 청소년기의 뇌 발달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 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분명하게 인식하여 스마트폰을 현명하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03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은 주로 즐거움과 관련된 보상을 얻을 때 생기는데,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손가락을 몇 번 움직여 재 미있는 일을 할 수 있고, 단순하게 조작하여 게임을 할 수도 있다. 따라서 스마트폰만 있으면 쉽고 빠르게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것 이다.

평가 기준	확인 ☒
스마트폰으로 쉽고 빠르게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까 닭을 바르게 서술하였다.	☐
내용을 완결된 형태의 한 문장으로 서술하였다.	☐

04 뇌의 사고 능력과 스마트폰 의존도 간의 관련성을 알아보는 실험의 결과, 지도 프로그램이 설치된 스마트폰에 의지해 목적지에 도착한 참가자들이 목적지까지 찾아온 경로를 지도로 그리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고 정확도가 가장 떨어졌다. 이 실험 결과로 전자 기기에 의존할수록 우리의 뇌는 점점 스스로 생각하지 않으려 한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하였다.

05 (가)는 버려진 옷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오염에 관한 내용이고, (나)와 (다)는 패스트 패션으로 인한 환경 오염을 줄이기 위한 해결 방안에 대한 내용이므로 (가)~(다)는 주장하는 글의 본문에 해당한다. (라)에서 글의 내용을 요약하고 글쓴이의 주장을 강조하며 독자의 행동 변화를 촉구하고 있으므로 (라)는 주장하는 글의 결론에 해당한다.

06 (가)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버려지는 옷 중 5퍼센트는 재활용되고, 나머지 95퍼센트는 다른 나라로 수출된다고 하였으나, 다른 나라에서 헌 옷을 수입하는 까닭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오답 풀이 ① (라)에서 비교적 값이 저렴하고 최신 유행을 따르고 싶다는 이유로 우리가 옷을 쉽게 산다고 하였다.

② (다)에서 어떤 옷을 구매할지 선택할 때 가격과 품질 외에 환경 보호라는 가치를 기준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④ (가)에서 헌 옷이 재활용되는 비율은 5퍼센트라고 하였다.

⑤ (가)에서 전 세계에서 한 해 동안 생산되는 옷은 약 1,000억 벌이라고 하였다.

07 ㉠은 불필요하게 새 옷을 구매하지 않는 구체적인 방법에 해당한다. 따라서 ㉡과 반복되는 내용이므로 삭제해야 한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08 ㉢는 일상생활 속에서 패스트 패션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 오염을 막기 위해 소비자가 할 수 있는 일을 말한다. (나)에서 글쓴이는 불필요하게 새 옷을 구매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위해 빠르게 변화하는 유행에 따라 옷을 구매하지 말고, 오랫동안 잘 입을 수 있는 옷을 신중하게 구매하며, 옷이 필요할 때 중고 의류를 사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또한 (다)에서 글쓴이는 친환경적인 의류 소비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가격과 품질 외에 환경 보호라는 가치를 기준으로 삼아 옷을 구매해야 한다고 하였다.

평가 기준	확인 ☒
불필요하게 새 옷을 사지 않는다는 내용을 서술하였다.	☐
친환경 의류 소비를 지향해야 한다는 내용을 서술하였다.	☐

09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진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제공하는 정보를 모두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10 전통 음식인 ‘너비아니’를 소개한다는 단순한 제목에서 질문을 던지고 유사 발음을 활용한 제목으로 바꾸어 독자의 궁금증을 유발하고 관심과 흥미를 불러일으키게 한다.

48 열정 노트

11 글로만 설명되어 있는 것을 시각 자료(사진) 등을 활용하여 보여 주면 내용을 명확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너비아니를 만들 때 필요한 재료의 양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는 내용을 서술하였다.	☐
너비아니를 만드는 방법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할 수 있다는 내용을 서술하였다.	☐

12 정보를 전달하는 글을 쓸 때에는 글에서 활용한 정보의 출처를 분명하게 밝히면 정보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출처를 밝히는 까닭을 바르게 서술하였다.	☐
내용을 완결된 형태의 한 문장으로 서술하였다.	☐

3 세상을 담는 언어, 우리를 잇는 매체

최종 단원 평가 1회

24~26쪽

- 01 ④ 02 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 조사, 관형사, 부사, 감
탄사, 동사, 형용사 03 ④ 04 ⑤ 05 ③
06 ⑤ 07 ① 08 ② 09 ② 10 ④
11 ④ 12 ② 13 ① 14 (가)는 일대일로 소통
하지만, (나)는 다수와 동시에 소통할 수 있다. 15 ⑤
16 ④ 17 ①

01 품사는 형태, 기능, 의미에 따라 단어를 분류할 수 있다. 형태를 기준으로 두 가지(불변어, 가변어)로 분류할 수 있으며, 기능을 기준으로 다섯 가지(체언, 용언, 수식언, 관계언, 독립언)로 분류할 수 있다. 의미를 기준으로 할 때에는 9가지(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관형사, 부사, 조사, 감탄사)로 분류할 수 있다.

02 품사는 의미를 기준으로 '명사, 대명사, 수사, 조사, 관형사, 부사, 감탄사, 동사, 형용사' 아홉 가지로 나눌 수 있다.

03 '꿈'은 명사이고, 문장에서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다. 이처럼 문장의 주어나 목적어 역할을 하는 품사는 체언으로, 명사, 대명사, 수사가 이에 해당한다. '빨리'는 부사로, 수식언이기 때문에 '꿈'과 바꾸어 쓸 수 없다.

- 오답 풀이 ① '꽃'은 명사로, 체언이다.
② '그것'은 대명사로, 체언이다.
③ '당신'은 명사 또는 대명사로 쓰이며, 체언이다.
⑤ '동생'은 명사로, 체언이다.

04 ㉠은 구체적인 대상을, ㉡은 추상적인 대상을 나타내는 명사이다. '슬픔, 고통, 노력'은 모두 추상적인 대상을 나타내는 명사이다.

- 오답 풀이 ① '눈'과 '하늘'은 구체적인 대상을 나타내는 명사이지만, '희망'은 추상적인 대상을 나타내는 명사이다.
② '축구공'은 구체적인 대상을 나타내는 명사이지만, '열정, 믿음'은 추상적인 대상을 나타내는 명사이다.
③ '재치'와 '사랑'은 추상적인 대상을 나타내는 명사이지만, '별'은 구체적인 대상을 나타내는 명사이다.
④ '꿈'은 추상적인 대상을 나타내는 명사이지만, '안개'와 '학교'는 구체적인 대상을 나타내는 명사이다.

05 ㉠은 뒤에 오는 말을 꾸며 주는 역할을 하는 수식언이지만, ㉡은 문장의 주어, 목적어 등의 역할을 하는 체언이다.

- 오답 풀이 ① ㉠과 ㉡은 동일한 형태이지만 ㉠은 관형사, ㉡은 수사에 해당하므로 서로 품사가 다르다.
② ㉠과 ㉡ 모두 문장에서 쓰일 때 형태가 변하지 않는다.
④, ⑤ ㉠과 달리 ㉡은 기능에 따라 분류할 경우 체언에 속하기 때문에 문장에서 조사와 결합할 수 있다.

06 '도'는 이미 어떤 것이 포함되고 그에 더한다는 뜻을 나타내는 조사이다.

- 오답 풀이 ①, ④ '은', '는'은 어떤 대상이 문장 속에서 화제임을 나타내거나 강조의 뜻을 나타내는 조사이다.
② '만'은 다른 것로부터 제한하여 어느 것을 한정함을 나타내는 조사이다.
③ '가'는 문장의 주체를 표시하는 조사이다.

07 '예뻐지네'의 기본형은 '예쁘다'가 아니라 '예뻐지다'이다. '예쁘다'는 생긴 모양이 아름다워 눈으로 보기에 좋거나, 행동 및 동작이 사랑스럽거나 귀여울 때 쓰는 형용사로, '예쁘네' 등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예뻐지다'는 모양이나 생김새 등이 보기에 좋아지는 움직임이나 작용을 나타내는 동사로, '예뻐지네' 등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08 '하얗고'는 '하얗다'의 활용형으로, 깨끗한 눈이나 밀가루와 같이 밝고 선명하게 흰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이다. 이는 문장에서 주체인 안개꽃의 상태나 성질을 서술하는 역할을 한다. '예쁘게' 역시 형용사 '예쁘다'가 활용한 것이므로 '하얗고'와 같은 품사이다. 그러나 '피었다'는 꽃봉오리 등이 벌어졌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동사이므로, '하얗고'와 같은 품사가 아니다.

09 '밥은 제때 챙겨 먹었으면 좋겠다.'에서 부사는 사용되지 않았다. '제때'는 정해 놓은 그 시각을 의미하는 명사이다.

- 오답 풀이 ① '빨리'는 뒤에 오는 동사 '나가자'를 꾸며 주는 부사이다.
③ '슬며시'는 뒤에 오는 동사 '열고'를 꾸며 주는 부사이다.
④ '열심히'는 뒤에 오는 동사 '공부했다'를 꾸며 주는 부사이다.
⑤ '많이'는 뒤에 오는 동사 '아끼다'를 꾸며 주는 부사이다.

10 '새'는 명사 '집'을 꾸며 주는 관형사이고, '거의'는 동사 '완성되었다'를 꾸며 주는 부사이다. 관형사와 부사는 수식언으로, 뒤에 오는 말을 수식하여 의미를 더하는 역할을 한다.

- 오답 풀이 ① 문장의 주체가 되는 말을 서술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용언(동사, 형용사)이다.
② 문장에 쓰인 단어들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은 관계언(조사)이다.
③ 주로 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어 등으로 쓰이는 것은 체언(명사, 대명사, 수사)이다.
⑤ 독립적으로 쓰이며 감정이나 느낌을 나타내는 것은 독립언(감탄사)이다.

11 첫 번째 빈칸에는 '여보세요', 두 번째 빈칸에는 '네' 등이 들어갈 수 있다. '여보세요'는 부름을 나타내는 단어, '네'는 대답을 나타내는 단어로, 둘 다 독립적으로 쓰인다. '여보세요'와 '네'처럼 문장에서 다른 말에 얽매이지 않고 쓰이는 품사는 감탄사이다.

12 매체는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로,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에 친구와 개인적으로 다룬 일에 대한 글을 올렸다. 하준은 '@' 기호를 사용하여 소연을 언급하고, 소연과 관련한 내용을 게시 글을 올렸기 때문에 의사소통의 대상자가 소연임을 알 수 있다.

13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는 비교적 자유롭게 생각이나 의견, 관점 등을 공유할 수 있는 개방적인 공간이다. 그러나 지나치게 개인적인 내용을 불특정 다수가 보는 공간에 올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친한 친구들에게 자신의 고민에 대해 조언을 구하는 내용은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보다는 온라인 대화방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14 (가), (나)는 온라인 대화방으로, 대화방의 유형에 따라 (가) 개인 대화방, (나) 단체 대화방으로 나눌 수 있다. (가)는 한 명의 상대와 일대일 대화를 하고 있으며, (나)는 다수와 동시에 소통하고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가)와 (나) 매체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

15 (가)는 온라인 대화방으로, 정보의 생산과 수용이 쌍방향으로 이루어지는 상호 작용적 매체이다. 원하는 정보에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대화의 내용이 항목별로 나누어져 있는 것은 (가)와 같은 온라인 대화방이 아닌 누리집의 특성이다.

16 민주는 대화 참여자들에게 행사에 같이 참여해 보자며 친근함을 표현하고 있지만, 줄임말을 사용하지는 않았다.

17 (가)와 (나)의 대화를 살펴보면 참여자들이 대화 이전부터 서로 알던 사이임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② (가)와 (나)는 모두 온라인 공간에서의 소통으로, 장소의 제약 받지 않는다.

③ (가)에서는 'ㅠㅠ'라는 모음을 활용하여 감정을 표현하였고, (나)에서는 'ㅎㅎ'라는 자음을 활용하여 감정을 표현하였다.

④ (가)와 (나)에서는 모두 대화 쌍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⑤ (가)는 2명의 참여자가 일대일로 대화를 나누고 있고, (나)는 3명의 참여자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최종 단원 평가 2회

27~29쪽

- 01** ① **02** ② **03** ② **04** ④ **05** ①
06 ② **07** ② **08** ⑤ **09** ①의 '같이'는 조사,
 ①의 '같이'는 부사이다. 조사는 반드시 문장에서 다른 말에 붙어서 쓰이므로 명사 '돌' 뒤에 붙어 쓰지만 부사는 띄어 쓴다.
10 ⑤ **11** ⑤ **12** 친구들에게 독도 사랑 필통 만들기 행사에 함께 참여하자고 제안하기 위함이다. **13** ①
14 ① **15** ⑤ **16** ④

01 품사는 문장에서 단어의 형태가 변하는지에 따라 형태가 변하는 말과 변하지 않는 말로 나뉘고, 문장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에 따라 체언, 수식언, 관계언, 독립언, 용언으로 나뉜다. 또한 문장에서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지에 따라 명사, 대명사, 수사, 조사, 관형사, 부사, 감탄사, 동사, 형용사로 나뉜다. 따라서 ㉠은 형태, ㉡은 기능, ㉢은 의미이다.

02 '아름답게'는 형용사 '아름답다'의 활용형으로, 용언에 속한다. 반면 '새, 옛'은 관형사로, 수식언에 속한다.

오답 풀이 ① '처럼', '에게', '를'은 조사로, 관계언이다.

③ '앗', '어머', '여보세요'는 감탄사로, 독립언이다.

④ '이것'은 대명사, '컴퓨터'는 명사, '하나둘'은 수사로, 모두 체언이다.

⑤ '달리다'와 '먹다'는 동사, '빠르다'는 형용사로, 모두 용언이다.

03 ②의 '바로'는 부사로 쓰인 나머지와는 다르게 본래의 자세로 돌아가라는 구령을 의미하는 감탄사이다.

오답 풀이 ① 뒤에 오는 동사 '맞혔다'를 꾸며 주는 부사이다.

③ 뒤에 오는 동사 '전화해'를 꾸며 주는 부사이다.

④ 뒤에 오는 동사 '자란다'를 꾸며 주는 부사이다.

⑤ 뒤에 오는 동사 '싸야'를 꾸며 주는 부사이다.

04 빈칸은 주어와 목적어 자리로, 주어와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품사는 체언이다. 체언에는 명사, 대명사, 수사가 있다.

오답 풀이 ① 부사는 용언, 다른 부사, 문장 전체 등을 꾸며 주는 역할을 하는 품사이다. 따라서 문장의 주어와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수 없다.

② 조사는 주로 체언 뒤에 부어서 그 말과 다른 말과의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거나 그 말의 뜻을 더해 주는 역할을 하는 품사로, 문장에서 홀로 쓰일 수 없고, 반드시 다른 말에 붙어서 쓰인다. 주어진 문장에서는 '이/가', '을/를'이 조사에 해당한다. 따라서 문장의 주어와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수 없다.

③ 감탄사는 말하는 사람의 느낌이나 놀람, 부름, 대답 등을 나타내는 품사로, 문장에서 다른 말에 얹매이지 않고 쓰인다. 따라서 문장의 주어와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수 없다.

⑤ 형용사는 사람이나 사물의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품사이다. 주어진 문장에서는 '좋아한다'가 형용사이다. 따라서 문장의 주어와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수 없다.

05 '많다'는 문장에서 '많아라' 등으로 활용할 수 없으므로 형용사이다.

오답 풀이 ② '민다'는 '민는다' 등으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동사이다.

③ '놀리다'는 '놀려라' 등으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동사이다.

④ '예쁘다'는 '예쁘자' 등으로 활용할 수 없으므로 형용사이다.

⑤ '부드럽다'는 '부드러운다' 등으로 활용할 수 없으므로 형용사이다.

06 제시된 문장에는 동사가 사용되지 않았다.

와	바다	가	정말	넓고	시원하구나
감탄사	명사	조사	부사	형용사	형용사

07 제시된 문장에 쓰인 부사는 ‘갑자기’, ‘같이’로 2개이다.

08 ‘준비, 시작! 우리의 인생은 지금부터야.’에서는 감탄사가 사용되지 않았다. ‘시작’에 느낌표가 붙어 감탄사처럼 보이지만, ‘시작’의 품사는 명사이다.

오답 풀이 ① ‘네’는 대답을 나타내는 감탄사이다.
②, ③, ④ ‘이런’, ‘아’, ‘우아’는 느낌을 나타내는 감탄사이다.

09 ㉠의 ‘같이’는 앞의 명사 ‘돌’에 붙어 쓰인 조사이다. 조사는 주로 체언 뒤에 붙어서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거나 뜻을 더해 주는 역할을 하는 품사로, 반드시 문장에서 다른 말에 붙어서 쓰인다. ㉡의 ‘같이’는 뒤에 오는 동사 ‘깎다’를 꾸며 주는 부사이다. 부사는 문장에서 용언이나 다른 부사, 문장 전체 등을 꾸며 주는 역할을 하는 품사로, 다른 말과 띄어 쓴다.

평가 기준	확인 ☒
㉠이 조사임을 밝혔다.	☐
㉡이 부사임을 밝혔다.	☐
㉠과 ㉡의 띄어쓰기가 다른 까닭을 서술하였다.	☐

10 ㉢ ‘거의’는 뒤에 오는 용언 ‘없다’를 꾸며 주는 부사이다.

11 ‘아끼다’와 ‘아물다’의 품사는 동사이지만 ‘아득하다’의 품사는 형용사이다.

오답 풀이 ① ‘사랑’, ‘강아지’, ‘선생님’은 명사이다.
② ‘이크’, ‘아이코’, ‘아서라’는 감탄사이다.
③ ‘얇다’, ‘가늘다’, ‘줄겁다’는 형용사이다.
④ ‘아직’, ‘결코’, ‘아장아장’은 부사이다.

12 (나)의 민주는 친구들에게 독도 사랑 필통 만들기 행사에 함께 참여하자고 제안하기 위해 독도 사랑 필통 만들기 행사의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가) 게시판의 링크를 공유하였다.

평가 기준	확인 ☒
민주가 필통 만들기 행사 안내 글을 단체 대화방에 링크로 공유한 까닭을 바르게 파악하여 서술하였다	☐
내용을 완결된 형태의 한 문장으로 서술하였다.	☐

13 (가)에서 누리집에 회원 가입을 해야 댓글을 작성할 수 있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있지만,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회원 가입을 해야 하는지는 알 수 없다.

14 (가)는 누리집, (나)는 온라인 대화방이다. (가) 누리집에서는 조회수를 통해 글을 읽은 사람의 수를 확인할 수 있으며, (나) 온라인 대화방에서도 상대방이 대화 내용을 읽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② (가)와 달리 (나)에서는 그림말을 통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있다.
③ (가)와 (나)는 모두 참여자에게 독도 사랑 필통 만들기 행사에 대한 정

보를 전달하고 있다.

④ (가)는 작성자가 ‘학예부’라고 나와 있으며, (나)도 대화하는 사람의 이름이 표시되어 있다.

⑤ (나)와 달리 (가)는 개인적 친분이 없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매체이다. (나)는 개인적 친분이 있는 친구들끼리 나누는 대화에 해당한다.

15 (나)의 사진은 ‘@’ 기호를 사용하여 찬혁과 소통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가)의 게시 글에서 ‘섬’이나 ‘모라고’와 같이 맞춤법에 어긋난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② (가)의 게시 글은 작성자가 ‘박**’이라고 표시되어 있어 작성자의 이름을 정확히 알 수 없다.
③ (나)의 하준은 소연과 찍은 사진을 첨부하여 사진을 찍을 때까지만 해도 소연과 잘 지냈던 상황을 강조하고 있다.
④ (나)와 같은 사적인 내용의 글을 불특정 다수가 보는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에 올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16 (가)는 공적인 공간에 개인적인 불만을 토로하는 글을 올렸고, (나)는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는 매체에 친구와 다툰 내용을 올려 문제가 되었다. (가)와 (나)의 상황에서 일대일 온라인 대화방을 이용하면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고 사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③ 일대일 온라인 대화방은 불특정 다수가 아닌 한 명과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공간이다.
② 해시태그를 활용하는 것은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와 관련이 있다.
⑤ 다양한 친구들의 의견을 들어볼 수 있는 매체는 일대일 온라인 대화방이 아닌, (가) 또는 (나) 매체이다.

4 갈등을 푸는 지혜

최종 단원 평가 1회

34~36쪽

01 ⑤ 02 ⑤ 03 ④ 04 ④ 05 ①

06 첫 번째 허물은 문기가 잘못 거슬러 받은 돈으로 공과 쌍안경을 산 일이고, 두 번째 허물은 삼촌에게 거짓말을 한 일이다.

07 ⑤ 08 ③ 09 ⑤ 10 ⑤ 11 ②

01 문기는 잘못 거슬러 받은 돈으로 온갖 가지고 싶었던 것을 사고, 해 보고 싶었던 일을 하자고 부추기는 수만의 꼬임에 넘어가 돈을 쓰게 된다. 이로 인해 문기는 죄책감을 느끼며 내적 갈등을 겪게 된다.

02 문기는 잘못 받은 거스름돈으로 공과 쌍안경을 산 일이 들통나 혼날 것이 두려워서 삼촌에게 거짓말을 하고, 삼촌의 훈계를 들으며 부끄러움을 느낀다. “네 입으로 수만이가 왔더니 네 말이 옳겠지. 설마 내가 날 속이기가 하겠니.”라는 말에서 삼촌은 문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삼촌이 문기를 떠보기 위해 문기의 잘못을 모른 척했다고 보기 어렵다.

03 (가)와 (나)에서 거스름돈을 쓰는 것에 주저하지 않는 수만의 모습이 나타날 뿐, 수만이 자신이 한 일에 책임을 지고 있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① 문기를 꼬여 잘못 거슬러 받은 돈을 함께 쓰자 하고, 돈을 쓰면 어떻게 되는지 걱정하는 문기에게 염려 말고 자기가 하는 대로만 하라는 데에서 수만이 약삭빠르고 겁이 없는 성격임을 알 수 있다.

② 문기는 삼촌의 훈계에 부끄러움과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③ 삼촌은 문기가 나쁜 데 빠지지 않도록 훈계하며 문기를 바른길로 이끌려고 한다.

⑤ 문기는 잘못 거슬러 받은 돈을 함께 쓰자는 수만의 꼬임에 넘어가 수만이 하자는 대로 하고 있다.

04 문기는 수만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므로 자기 책임은 없다고 생각했고, 수만은 문기가 만든 돈, 즉 문기가 잘못 거슬러 받은 돈을 쓰는 것이므로 나중에 무슨 일이 나도 자기 책임은 없다며 합리화하고 있다.

05 문기는 삼촌에게 꾸중을 듣고 나서 될 수 있는 대로 생각지 않으려고 했던 자신의 행동 즉, 써서는 안 될 돈을 쓰고 삼촌을 속인 것을 돌아보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되었다. 이에 문기는 죄책감과 부끄러움을 느껴 얼굴이 갈ප 달아오르게 되었다.

06 문기는 남은 돈을 고깃간 집 안마당에 던짐으로써 죄책감에서 벗어나고자 한다. 그러므로 자신의 ‘허물’은 문기가 잘못 거슬러 받은 돈으로 공과 쌍안경을 사고, 공과 쌍안경이 어디서 난 것인지 묻는 삼촌에게 수만이 준 것이라고 거짓말을 한 일을 말한다.

평가 기준	확인 ☒
잘못 거슬러 받은 돈을 쓴 일에 대해 서술하였다.	☐
삼촌에게 거짓말을 한 일에 대해 서술하였다.	☐

07 토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사람이 협력하여 의견을 모으는 말하기이다. 대립되는 두 의견을 바탕으로 서로 설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말하기는 토론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①, ④ 토의는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사람이 의견을 주고받는 협력적인 말하기로, 토의자들은 서로 의견을 나누면서 최선의 해결 방안을 찾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③ 토의자는 다양한 근거를 들어 자신의 의견을 말해야 하고, 다른 참여자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해야 한다.

08 사회자는 (가)에서 문제 상황(토의를 하게 된 배경)을 제시한 후 토의 주제와 토의자를 소개하고 토의 방식과 절차를 안내하며 토의를 시작하고 있다. (다)에서 토의자의 말을 요약하여 정리하고 있으며, (라)에서 토의 절차에 따라 토의를 진행하며 토의 참여자들이 효과적으로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토의 방향을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자가 토의 참여자의 의견을 평가하고 있지 않으며, 이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토의를 진행해야 하는 사회자의 역할로 보기 어렵다.

09 (나)에서 은우는 선착순으로 자리를 정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연은 집에서 학교까지의 거리가 먼 사람은 모두가 선호하지 않는 자리에만 앉게 되는 문제를 제기하였고, 지아는 먼저 온 친구가 친한 친구와 앉고 싶어 다른 친구의 자리를 맡아 둘 수 있다는 점을 걱정하고 있다.

오답 풀이 ㉠, ㉡ ‘친한 친구끼리 모둠을 이루어 앉자.’는 서연의 제안에 지아는 친한 친구와 앉으면 이야깃거리가 많아 수업 시간에 떠들게 되어 수업 시간에 집중할 수 없음을 지적하고 있다.

㉢ 서연은 집에서 학교까지의 거리가 먼 사람은 일찍 나와야 한다고 말할 뿐, 매일 일찍 등교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은우는 매일 일찍 등교하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원하는 자리에 앉는 보람을 느껴 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라고 하였다.

10 (라)에서 은우는 자신의 의견에 대해 다른 토의자가 제시한 문제점을 존중하고,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자신의 제안에 대한 장점만 내세우고 있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은우는 (나)에서 자리를 바꾸는 방법에 대해 ‘선착순으로 자리를 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하며 근거를 들어 자신의 의견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또한 (라)에서 “매일 일찍 등교하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원하는 자리에 앉는 보람을 느껴 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하며 자신의 의견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②, ④ 은우는 지아가 먼저 온 친구가 친한 친구와 앉고 싶어서 다른 친구의 자리를 맡아 둘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자,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문제라고 인정하고, 친구들끼리 서로 빈자리를 맡아 주지 않기로 규칙을 정하고, 약속을 어기는 친구에게는 일정 기간 선택권을 주지 않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③ 은우는 '교실에서 자리를 어떻게 바꿀까?'라는 토의 주제에 대해 '선착순으로 자리를 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한 근거로는 아침 일찍오는 노력에 따라 원하는 자리에 앉으면 성취감을 느낄 수 있고, 자율성을 존중받는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들었다.

11 (라)에서 서연은 은우의 의견을 비난하며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토의를 할 때에는 다른 사람의 의견에 이의가 있더라도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로 예의 바르게 자신의 생각을 말해야 한다.

최종 단원 평가 2회

37~39쪽

- 01** ⑤ **02** ③ **03** ③ **04** 문기는 삼촌에게 모든 잘못을 고백하고 흥분해짐을 느꼈다. **05** ④
- 06** ② **07** ④ **08** 자리를 추천으로 정하고, 다음 시간에 구체적인 방법을 이야기하자. **09** ③ **10** ④
- 11** ⑤

01 선생님은 수신 시간에 맞는 주제인 '정직'에 대해 수업을 한 것으로, 문기를 꾸짖기 위함이 아니었다. 하지만 문기는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선생님이 자신을 나무라는 것처럼 느낀 것이다.

02 '도둑이 제 발 저리다'는 지은 죄가 있으면 자연히 마음이 조마조마하여짐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 (다)에서 선생님과 눈만 마주쳐도 가슴이 뜨끔뜨끔하고 선생님이 제 속을 다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다고 느끼는 문기의 심리가 잘 드러나는 속담이다.

03 (가)와 (나)에는 문기의 잘못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남은 돈을 받아 내려는 수만과 문기 사이의 외적 갈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다)와 (라)에는 자신이 저지른 잘못으로 인한 죄책감과 양심의 가책 때문에 맑고 푸른 하늘을 쳐다볼 수 있는 문기의 내적 갈등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04 죄책감 때문에 맑은 하늘을 쳐다볼 수 없었던 문기는 그동안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삼촌에게 모두 고백함으로써 마음속의 어둠이 차차 사라지며 맑아지는 것을 느꼈다.

평가 기준	확인 ☒
문기가 삼촌에게 죄책감에서 벗어나 흥분해졌다는 내용을 썼다.	☐
문기가 삼촌에게 모든 잘못을 고백했다는 내용을 서술하였다.	☐

05 "풍길 태야."는 수만이 문기를 협박하기 위해 하는 말로, 문기가 도둑질을 했다는 소문을 내겠다는 의미이다.

06 문기가 자신의 잘못을 고백함으로써 갈등이 해결되는 과정을 통해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는 주제가 드러난다.

07 이 토의에서 서연은 토의자로, 청중의 질문에 답하고 다른 토의자와 의견을 나누며 더 나은 해결 방안을 찾고 있다. 토의자 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협조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사회자의 역할이다.

오답 풀이 ① (가)에서 민준(사회자)은 토의자의 의견을 요약하고 정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대부분의 학생이 선호하는 자리는 일찍 오는 특정 학생들만 계속 앉게 되는 상황이 생기지 않겠느냐는 하윤의 질문에 은우는 일정 기간 동안 앉지 못하는 규칙을 만들 수 있다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③ 유찬은 추천으로 자리를 정하면 모두에게 공평할 것 같으며 지아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교정시력이나 청력이 좋지 않은 친구가 맨 뒤에 앉게 되는 등의 상황이 생길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지 묻고 있다.

⑤ 은서는 친한 친구끼리 모둠을 이루어 앉자는 서연의 제안에 같은 반에 서로 성향이 비슷하거나 마음이 잘 맞는 친구가 없을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08 (다)에서 사회자는 토의 결과를 정리하면서 자리를 추천으로 정하기로 결정되었음을 밝히고, 자리를 추천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이나 자리를 추천하는 시기 등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나누어 보자고 하였다.

평가 기준	확인 ☒
자리를 추천으로 정하고, 다음 시간에 구체적인 방법을 이야기하자는 내용을 모두 썼다.	☐
주어진 형식에 맞게 썼다.	☐

09 대부분의 학생이 선호하는 자리는 일찍 오는 특정 학생들만 계속 앉게 되는 상황이 생기지 않겠느냐는 하윤의 질문에 은우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같은 자리에는 일정 기간 동안 앉지 못하는 규칙을 만들자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대부분의 학생이 선호하는 자리에 특정 학생들만 계속 앉게 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10 토의는 공동의 문제에 대해 관련된 이들이 모두 협력하여 가장 최선의 해결 방안을 찾는 과정이므로 (나)와 같은 청중과의 질의응답을 통한 조정과 소통이 필요하다.

11 토의 마무리 단계에서 민준(사회자)이 청중의 질의가 더 있는지 기다린 후 청중과의 질의응답을 마무리하고 있으므로, 자신의 생각과 같은 의견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민준(사회자)은 ‘교실에서 자리를 어떻게 바꿀까?’라는 토의 주제에 대해 토의자인 서연, 은우, 지아가 제안한 내용을 요약하고 정리하고 있다.

② 서연은 의견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자신이 제안한 의견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자신의 제안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다고 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철회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③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른 토의자의 의견에 동의한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④ 은우는 의견을 주고받는 과정을 통해 다른 토의자의 의견을 능동적으로 수용하게 되었음을 밝히고 있다.